

동물복지·생산성·악취해결 ‘1석3조’… 영세업체 참여 관건

전남도 친환경 축산 스마트팜 정책 추진

2022년까지 깨끗한 농장 1천개 지정·확대
2023년까지 대규모 융·복합 단지 조성·분양
시설 개선 비용 지원으로 업체 적극 참여 유도

구제역, 살충제 계란, 조류독감 등 매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심각해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퉀 환경 친화 축산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등 동물복지 측면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도 농공단지 형태의 친환경 융·복합 축산단지 조성과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등 다양한 환경친화 축산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영세 축산 농

가 등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가 저조해 환경친화 축산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악취 민원 매년 증가=전남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은 지난 2015년 100건에서 2016년 224건, 2017년 4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허가 축사와 노후 축사, 축산농가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수지만, 삶의 질 향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탓에 악취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깨끗한 환경 조성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가축 분뇨 적정 관리 및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산 농장의 악취 차단을 통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전남지역에 1000개의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소독시설 설치, 경관 조성 등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축산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까지 258개 농가가 지정됐다. 올해 목표 300 가구 대비 86%에 해당된다. 전남도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자원화 및 정화시설 설치 등 광역 축산 악취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융·복합 축산 단지 조성 추진=전남도는 무허가, 환경민원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규모 농공단지 형태

의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분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한 곳당 40ha 규모로, 2개의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 곳당 한 우 1만 마리와 돼지 11만 마리 등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될 전망이다. 축사에는 분뇨처리시설, ICT(정보통신) 융복합시설, 융복합 산업화(가공·유통·체형·관광 등) 시설, 사료가공·유통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남도는 오는 2월에서 4월 사이 농림식품부 공모에 대비해 부지확보에 나섰고,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5ha 규모 3곳(1곳당 75억원)을 공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장흥군(한우)과 화순군(양돈)을 공모사업 대상으로 준비중이다.

◇축산 ICT 융·복합 장비도 지원=전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축산 농가 등에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중이다. 한우와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농가 대

상으로 축산환경 모니터링, 사료 급여, 음수 관리 등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54 농가에

156억여원을 지원했다. 축종별로는 693개 한우 농가, 39개 양돈 농가, 18개 낙농 농가, 4곳의 양계 농가 등이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농림부 스마트팜혁신밸리 2차 공모…道, 고흥군 후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8일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2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흥군 도덕면 일원을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후보지로 내세워 경쟁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스마트팜 전국 확산 거점으로 삼고자 전국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1차 공모를 통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2곳을 선정하는 추가 공모다. 오는 11일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하고, 공모 마감은 3월8일까지다. 서면·현장평가·대면평가를 거쳐 오는 3월

28일 최종 확정한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후보지로 고흥군을 선정했다.

고흥군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700여 원을 들여 유리온실과 실증단지, 청년보육단지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대상 후보지 30여ha가 농식품부 소유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여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북미정상회담 임박” vs “한반도 정세 중국 변수 부상”

‘김정은 방중’ 두 가지 시선

북미 ‘딜’ 조율 위해 중국행
순조로울 땐 북미협상 속도
‘중 배후론’ 협상 꼬이거나
북 ‘속도 조절’ 피할 수도

새해 벽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찾으면서 앞으로 북미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7~10일로 발표된 김 위원장의 전격 방북은 북핵 해결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9년 ‘중국 변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2018년 남북미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국이 본격 개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 방중과 그것을 통해 이뤄질 중국의 한반도 문제 영향력 강화에 대한 외교가의 시선은 미묘하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일정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북미 간 중요한 계기를 앞둔 시점이나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7일 오후 평양을 떠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김위원장이 리여사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차원에서 이번에도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이와 관련된 조율을 위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현 단계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중국과 조율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을 정점으로 하는 북미 협상 재개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국의 가세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다. 무엇보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것을 미국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6·12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작년 가을 북미간 협상이 교착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북중 밀착을 강하게 견제했다. 작년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시 주석의 방북(답방)이 무산된 것도 미국의 강한 견제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현재의 북핵 상황은 가시적으로는 시 주석 답방이 무산됐던 작년 하반기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의 ‘배후다지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아시아에서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 중국이 북한이라는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일 수 있다.

결국 북미협상 과정에 중국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북한이 ‘속도 조절’을 꾀할 수도 있고, 미국 측의 중국 배후론을 불러오면서 협상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

교황 “한반도 대화 긍정적…영속적 해결책 도출되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사국들 사이의 대화를 호의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또한 대화가 진전돼 한반도의 향후 발전과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영속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교황은 7일 오전(현지시간) 교황청 사도궁에서 진행된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

로 한 신년 연설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공존, 약자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당부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다.

교황은 이백만 주교황청 한국 대사 등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83개국 외교단과의 신년 하례식을 겸한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반겼다. /연합뉴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돌연 사임

김용(59·미국명 Jim Yong Kim·사진) 세계은행 총재가 다음 달 1일 사임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임기를 3년 가까이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중도하차함에 따라 사임 배경이 주목된다.

김 총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사명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기관의 회장으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김 총재는 이날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2월 1일 세계은행 총재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향후 진로와 관련,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민간 기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총재는 2012년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직을 맡아 2016년 9월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총재는 다섯 살 때 미국 아이오와주로 이민했으며 브라운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에서 의학박사와 인류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 대학 의대 교수로 재직했다. /연합뉴스

단독

바로합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특수물건만 취급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 매 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광주 시민을 위한 신년 앙코르 무료 세미나

부동산 시장전망 투자전략大특강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
일 시	2019. 1. 9(수) 오후 2시, 7시
문의전화	1899-4267 · 010-9030-5209

※사전 예약 필수·선착순 좌석배정중 참석 인원 100명

제1강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전략 대공개

- 2019년 상반기 가장 확실한 아파트 갭투자 방법 공개
- 주택 임대사업으로 상위 1%가 되는 투자전략
- 소액투자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비법 공개

제2강의 ▶땡! 땡! 땡! 토지투자 유망지역 대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자 전략 대공개
- 미래가치 확실한 개발지 찾는 법 공개
-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입지와 실투자 매물공개
- 개발지 토지 소액 투자로 노후 연금 이상의 수익 내는 방법 전격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MTN머니투데이-김성민의 비즈정보소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혁신 한국인 선정)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LBA법률중개사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20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합법 게재중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신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화순읍 이십리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거리 2억6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서구 송촌동 윤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평관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동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만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능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정읍시 신대원을 1213㎡ 건평 6억4천 다세대 적합한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제주시 애월읍 땅 10023㎡ 공사중단건물 신탁 51억 유치권 30억·81억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룠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능성초교옆문앞